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차이 분석

이 자 명

명지대학교

두 경 희[†]

호서대학교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이로 인해 성역할인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이 어떠한 성역할 인식과 역할기대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교사지방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역할 인식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과 진로장벽 전체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반면,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전체,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에서는 남녀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역할기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학생이 역할기대 전체 및 하위역할기대에 있어서 모두 남학생보다 기대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중역할계획 몰입과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서 개입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성역할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성역할인식, 성역할기대, 예비교사, 다중역할, 성별

[†] 교신저자 : 두경희,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 / Tel : 041-560-8389, E-mail : kiku19@hoseo.edu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성차별을 지양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많아지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아직 성역할전통주의를 고수하는 의식구조가 내재하고 있기는 하나(김영희, 2005),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있어 이로 인한 갈등이 새로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매스컴에서 아버지의 육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자녀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를 위한 육아서적이 다수 증가하는 풍경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파트너로서 남녀 간의 협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정미라, 2008; 정혜숙, 2001). 특히,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표(2015)를 살펴보면 한국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OECD 회원국의 남성평균가사노동시간인 139분에 턱없이 부족하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듯, 학교의 교과내용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편견을 깨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교과내용이 성역할의식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의식이 그렇지 못하다면 의미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성역할 의식과 정체감은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잠재적 의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역할 의식은 남녀 학생에 대한 역할기대, 남녀 학생간의 상호작용,

언어적 표현,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정, 윤지현, 2005). 학생들의 성역할 인식 및 태도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일찍이 제기되었다. 허순희와 정진경(1987)은 교사는 학생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성역할의 내용을 전수하고 교사자체가 동일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에서 교사들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성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교사가 지도한 실험집단에서는 성역할태도가 비고정관념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반면, 통제집단은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의 역할이 실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희(2005)는 교사가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많은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교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을 이해하고, 개인적 힘(personal power)을 강화시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교사는 성별의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의식향상이 된 개인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미라(2008) 역시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이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하였다. 교사의 의식이나 사고양식은 무엇보다 교육의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하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역할 인식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교사들의 성역할의식과 기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의식과 역할기대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성역할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성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양성평등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유정, 윤지현, 2005; 정미라, 2008)는 그 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예비교사들은 추후 교육현장에 진출하게 될 집단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성역할 교육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유정과 윤지현(2005)은 예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을 연구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의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건강한 성역할 정체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세경과 김은정(2009, 재인용) 역시 충청도 소재 교육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경과 여성연(2015)은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고정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양성평등적 성역할인식이 여학생이 높아 남녀 학생간에 성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연구된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숙한 성역할 인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간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예비초등교사나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불 때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범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범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식과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다중역할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협력과 공조는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정내에서의 협력과 공조는 실제로 부부간의 인식의 변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역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가정 내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성역할 인식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장차 한 가정을 구성할 아이들을 교육하게 될 예비교사들의 가치관과 의식은 가정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하며, 교육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성역할의식과 역할기대를 성별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역할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변인 중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지 살펴보고, 성별이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에 대한 기반으로

삼고자 함이다. 이때 성역할 기대는 가정 내에서 부부가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부모, 자녀, 가사분담자, 경제활동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드러날 수 있는 영역으로 배우자역할영역, 부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역, 가사분담자 역할영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예비교사의 성역할기대는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성역할 인식 변인 중 성역할기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성역할 인식

개인은 출생하면서부터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 중에서 성별로 인해 한 사회집단에서 남녀 각 구성원에게 동일시되는 행동을 성역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최외선, 2003). 즉, 성역할은 인간이 태어난 후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사회적인 성(gender)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성은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으로 구분되고 생물학적 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에는 문화가 특정 성별에 적절한 것으로 규정한 행동, 태도에 대한 기대(Anderson, 1983)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김유정, 윤지현, 2005). 일반적으로 성역할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내재화되고 이렇게 내재화된 성역할은 이후 개인의 심리적인 활동에서부터 교육이나 직업선택에 이르는 사회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grist(1969)는 성역할의 의미를 규범과 행동, 기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였는데, 규범에서의 성역할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이렇게 해야한다는 노동 분업적인 남녀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적 관점에서는 사회구조와는 관계없이 남녀의 인성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 기대적 관점은 개인이나 집단에서 남성이나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믿음과 기대를 말한다(양순옥, 정금희, 2002).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역할인식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자아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기지각을 말한다(김유정, 윤지현, 2005). 고경리(1991)는 학생과 교사들의 성역할사회화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한 연구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교사의 성역할 인식이과 여학생의 성역할 인식간에 상관을 나타내어 교사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영희(2005)는 초, 중, 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들의 성역할정체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양성성 정체감의 비율이 여성교사는 34.5%, 남성교사는 33.8%로 보인다고 하였다. 같은 시기, 김유정과 윤지현(2005)의 연구를 보면, 남자 예비교사가 양성성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해 여자 예비교사는 미분화유

형에 많이 분포되어 전통적인 성역할과 근대적인 성역할 사이에서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김영희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비교적 최근인 정미라(2008)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영역별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교사나 예비교사의 경우 비교적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에서는 성별에 따른 양성성 정체감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구에 따라 이견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성역할 인식이 논의된 맥락을 살펴보면, 주로 성역할 태도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다중 역할에 대한 인식, 맞벌이 또는 가사노동분담의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옥(1999)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에서 고정관념, 성별분업, 남녀의 권위관계의 세 가지 구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다. 한인영 등(201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역할 태도 등을 포함시키고 연구 척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맞벌이로 인한 경험, 다중역할에 대한 내용, 남편의 일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박종서(2013)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인식을 가사노동분담, 양육활동분담, 부부간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어, 성역할 인식이 주로 성역할 태도 및 고정관념, 다중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역할 인식을 사회가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행동, 습관, 관습, 개념, 관념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역할 인식이란 개인이 사회적, 역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성 역할에 대한 지각을 의미(양순옥, 정금희, 2002)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하에서 성역할 인식으로 맞벌이 경험과 맞벌이 태도, 가사노동분담비율,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척도를 포함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아직 다중역할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이기에 다중역할에 대한 계획척도를 포함시켜서 다중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예비교사들은 어떠한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인식이 역할기대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이다.

성역할기대

역할기대는 사회구조와 역할행동사이를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지위를 지닌 사람이 다른 지위를 점유한 사람과 갖는 권리, 특권, 의무, 책임이라 할 수 있고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타인의 요구나 평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미, 1995). 즉, 성역할기대는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권리, 특권, 의무,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성역할 인식이 의식적인 차원이라면 성역할기대는 좀 더 행동적인 측면과 연결된 개념이므로 실제적인 역할기대도 인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Secord(1964)는 역할기대를 규범적인 측면과 예측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규범적 역할기대가 보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라면 예측적 역할기대는 강제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역할수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역할기대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규범적인 측면이 보다 영향

을 미쳐서 해야 할 역할이 이루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호간의 역할기대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이윤미, 1995). Bahr 등(1983)도 역할기대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일치정도라고 하여 상호간의 역할기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순돌 등(2012)은 성역할 인식을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신념으로 성역할 사회화의 소산'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역할 기대는 평등한 것으로 빨리 변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들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속한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더 보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남녀간의 역할기대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기대를 부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기반하여 배우자 역할영역, 부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역, 가사분담자역할영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역할기대의 한 측면으로, 가사노동분담의식을 다룬 연구를 보면 차성란(199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전통과 근대의 중간수준에 속하는 성역할 태도를 보였고,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냈다. 가사노동분담의식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나타났고,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의식이 낮았다. 이윤미(1995)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점을 주목하면서 부부보다는 자녀중심의 결혼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기혼자가

아니기에 실제 생활에 기반하기보다는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개념화수준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떠한 인식수준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덧붙여, 남편이 아내에게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와 수행에 대한 차이가 큰 부분이기에 남녀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순돌(2012)은 세대별로 성역할인식과 부양의식을 살펴본 결과 성역할 인식은 세대별로 평등형의 성역할인식이 나타났으나 부양의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부모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부양에 관한 생각이 약해지면서 세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비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며 자식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배우자에게 가지는 역할기대의 정도 및 일치정도를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인식과 역할기대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범대에 재학하거나 교직이수를 위해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교사지망 대학생 299

표 1. 연구참여자 분포

	성별		전체 명()%	
	남	여		
학년	1	15 (5.1)	43 (14.6)	58 (19.7)
	2	64 (21.7)	85 (28.8)	149 (50.5)
	3	20 (6.8)	14 (4.7)	34 (11.5)
	4	23 (7.8)	20 (6.8)	43 (14.6)
	초과학기	1 (0.3)	10 (3.4)	11 (3.7)
연령	19세 이하	3 (1.0)	6 (2.0)	9 (3.1)
	20-25세	104 (35.2)	157 (53.2)	261 (88.4)
	26세 이상	16 (5.5)	9 (3.1)	25 (8.5)
전체	123 (41.7)	172 (58.3)	295 (100)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295명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4년 1학기 중 교직과목 수강생 중 자발적 참여들만이 받아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연구자로부터 연구 및 응답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연구 응답자는 1회 설문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에는 인구학적변인,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 부모님의 맞벌이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척도, 역할기대척도, 진로장벽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로장벽 척도(손은령, 2001) 중, 성역할 인식 및 역할기대와 관련한 진로장벽 하위 척도를 선별한 후 이를 진로장벽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측정도구

성역할 인식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식과 역할기대를 측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는 부모님이 맞벌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 없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님의 맞벌이에 대한 태도는 부모님의 맞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맞벌이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점-매우 부정적이다, 5점-매우 긍정적이다).

가사노동분담비율

가사노동분담비율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결혼한다면 어느 정도로 가사노동을 분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가장 가까운 분담 비율에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은 1-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가사분담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1점은 부인이 100% 전담하고 남편이 0%이며, 2점은 부인 75%와 남편 25%, 3점은 남녀의 분담비율이 50%로 동등한 것을 뜻한다. 4점의 경우 부인은 75%인 반면 남편 25%로, 5점은 남편이 100% 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지금수(1992)와 정진희(1990)의 연구를 기초로 이윤미(1995)가 재구성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이고 진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다중역할계획척도

다중역할계획척도는 Weitzman(1996)과 최윤정(2010)의 연구를 기초로 김현숙(2012)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식/확신성(10문항), 몰입(10문항),

개입(10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지식/확신성은 다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다중 역할을 병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준비, 계획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말하며, 몰입은 진로와 가정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내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입은 다중역할계획에 대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고려하는 정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도(안진아, 2008)를 반영한다.

원 척도에서 Cronbach' α 는 지식/확신성 .83, 몰입 .79, 개입 .8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지식/확신성 차원은 .71, 몰입은 .54, 그리고 개입은 .58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진로장벽 척도는 손은령(2001)이 제작한 진로장벽검사(여자대학생용)을 남녀 대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소지 상담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검사(손은령, 2001)의 7가지 하위 척도 중, 연구 목적에 맞는 것으로 평정된 두 가지 척도(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과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성역할 인식 및 역할 기대와 관련한 진로장벽 하위 척도로 판단하였으며, 이상의 두 개념을 종합하여 진로장벽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9문항,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5문항으로 총 14 문항이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원 척도에서 Cronbach' α 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87,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6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82,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57로 나타났다.

성역할 기대

역할기대척도

역할기대척도는 김정자(1989), 서광희, 조병은(1993)의 연구를 토대로 이윤미(1995)가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배우자 역할영역, 부모역할영역, 자녀역할영역, 가사분담자역할영역, 경제활동역할영역으로 구성되며, 남남편용은 1-23번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내용은 1-26번으로 구성되었다. 남편용은 남학생용으로 아내용은 여학생용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기대하지 않는다부터 매우기대한다로 구성된다.

역할기대 척도에서 남녀별 신뢰도(Cronbach' α)의 경우, 여성은 배우자 역할영역에서 .77, 부모역할은 .74, 자녀역할은 .81, 가사분담자역할에서는 .75,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영역은 .67로 나타났다. 남성용 척도의 경우, 배우자 역할 .86, 부모역할 .77, 자녀역할 .84, 가사분담자 역할 .54, 경제활동역할영역은 .71이었다.

절 차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성역할인식 및 역할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상담전공 박사학위소지자 3인의 검토를 거쳤다. 이후 서울 및 경기도에서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직이수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사를 희망

하는 299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4부를 제외하고 29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우선 예비교사의 성역할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성역할기대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설문 자료를 코딩한 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코딩 완료된 295명의 자료에 대해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그리고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맞벌이 여부 및 성별 변수에 대해서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부모가 맞벌이인 경우=1, 아닌 경우=0 / 남성=1, 여성=0). 또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남녀 차이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망 대학생의 성역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 후 본인이 맞벌이를 하고자 하는지 여부, 맞벌이에 대한 태도, 맞벌이 시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태도 하위 요인들, 다중역할 계획과 다중역할계획 하위 척도들, 진로장벽과 하위 척도 각각에 대해 전체 집단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표 2.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평균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전체	1.39	0.49	
	남	1.43	0.50	
	여	1.37	0.48	
맞벌이 태도	전체	3.24	0.99	
	남	3.27	0.96	
	여	3.22	1.01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전체	2.95	0.67	
	남	3.06	0.69	
	여	2.87	0.65	
성역할태도	전체	2.81	0.37	
	남	2.81	0.41	
	여	2.80	0.34	
다중역할계획	전체	전체	3.41	0.40
		남	3.43	0.45
		여	3.40	0.49
	지식확신	전체	3.14	0.53
		남	3.15	0.60
		여	3.14	0.49
	몰입	전체	3.92	0.56
		남	3.90	0.60
		여	3.93	0.53
	개입	전체	3.18	0.51
		남	3.24	0.54
		여	3.14	0.49
진로장벽	전체	전체	3.29	0.47
		남	3.20	0.49
		여	3.35	0.45
	다중역할갈등	전체	3.61	0.57
		남	3.42	0.59
		여	3.73	0.53
	취업고정관념	전체	2.71	0.63
		남	2.80	0.66
		여	2.66	0.60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대상이 된 전체 응답자 수는 295명이며, 그 중 척도별로 누락된 응답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사지망 대학생들이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성역할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과 진로장벽 전체 및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는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의 예상되는 맞벌이시 가사분담 비율은 남학생 평균 3.06(표준편차 0.69), 여학생 2.87(표준편차 0.65)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예상하는 가사분담비율에 비해 여학생들은 결혼 후 맞벌이 상황에서 부인의 가사분담 비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한편 진로장벽인식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지

망 남학생의 경우 평균 3.20(표준편차 0.49), 여학생은 평균 3.35(표준편차 0.4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학생의 진로장벽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진로장벽 요인에서 여학생은 평균 3.73(표준편차 0.53)으로 남학생(평균 3.42, 표준편차 0.59)에 비해 다중역할갈등을 유의미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기대 척도를 활용하여 성역할 기대 전체와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가사분담 역할 및 경제활동 역할에 대해 전체 집단 및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남녀 차이

		t값	df	유의확률
맞벌이 여부		1.113	258	0.267
맞벌이 태도		0.34	184	0.734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		2.352*	293	0.019
성역할태도		0.189	290	0.850
다중역할계획	전체	0.639	222	0.523
	지식확신	0.215	224	0.830
	몰입	-0.363	291	0.717
	개입	1.718	291	0.087
진로장벽	전체	-2.648**	283	0.009
	다중역할갈등	-4.662***	284	0.000
	취업고정관념	1.922	284	0.056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평균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기대	전체	전체	3.90	0.52
		남	3.53	0.44
		여	4.16	0.40
	배우자	전체	4.23	0.23
		남	4.06	0.58
		여	4.36	0.44
	부모	전체	4.27	0.61
		남	4.01	0.68
		여	4.39	0.52
	자녀	전체	3.63	0.84
		남	3.16	0.80
		여	3.96	0.70
	가사분담	전체	3.72	0.92
		남	2.92	0.72
		여	4.29	0.55
	경제활동	전체	3.39	0.76
		남	2.99	0.71
		여	3.67	0.67

표 5.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남녀 차이

		t값	df	유의확률
성역할기대	전체	-12.694***	288	0.000
	배우자	-5.035***	291	0.000
	부모	-4.258***	291	0.000
	자녀	-9.157***	289	0.000
	가사분담	-17.433***	213	0.000
	경제활동	-8.431***	289	0.000

* $p < .05$, ** $p < .01$, *** $p < .001$

교사지망 대학생들이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성역할 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성역할 기대 하위척도를 포함한 모든 요인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성역할 기대와 관련한 6가지 측면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기대를 나타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예비교사 남·여학생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성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인으로는 성역할기대를, 독립변인으로는 성역할 인식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진로장벽 및 각각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와 성역할 인식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예비교사의 성역할기대와 성역할 인식 관련 변인들(성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태도, 예상되는 가사분담비율, 성역할태도, 다중역할계획, 진로장벽 및 각각의 하위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성역할기대 총점과 다중역할계획 및 지각된

표 6.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와 성역할 인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성역할기대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가사 분담	경제 활동	전체	
성별	.283**	.242**	.474**	.732**	.444**	.599**	
맞벌이 여부	-.113	-.075	-.127*	-.072	-.001	-.100	
맞벌이 태도	.165**	.088	-.043	.048	-.050	.066	
예상가사 분담비율	-.086	-.097	-.146*	-.111	-.094	-.139*	
성역할 태도	-.055	-.144*	-.065	-.011	-.094	-.092	
다중역할계획	지식확신	.020	.014	-.008	-.065	-.030	-.023
	몰입	.299**	.206**	.060	.072	.074	.193**
	개입	.009	.003	-.151*	-.117*	-.127	-.108*
	전체	.153**	.104*	-.040	-.045	-.033	.135*
진로장벽	다중역할갈등	.278**	.185**	.173**	.237**	.085	.258**
	취업고정관념	.003	-.109*	.269*	.029	.279*	.050*
	전체	.219**	.141*	.169**	.199**	.104	.226**

* $p < .05$, ** $p < .01$, *** $p < .001$

진로장벽의 상관은 각각 $r=.135$, $r=.226$ 으로 $p<.05$ 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가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 및 지각된 진로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역할기대에 대한 성역할 인식을 설명하는 요인들의 상대적 공헌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상관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변인은 독립변인에서 제외시켰다.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인들이 성역할기대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인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과 허용도(Tolerance)를 검토하였다. 분산팽창요인(VIF)은 회귀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산성에 기인한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분산 값들의 팽

창 정도를 측정하는데, Slinker와 Glantz(1985)는 분산 팽창요인 값을 4 미만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VIF 값이 모두 4 미만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하겠다. 또한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 값이 일반적으로 1에 접근하면 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양병화,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허용도 값이 0.80 이상으로 이 또한 변인 간 다중공산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독립변인들이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42.3%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별(표준화 계수 $-.568$), 다중역할계획의 몰입(표준화

표 7.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605	-.568	-11.939***	.970	1.03
다중역할 계획-몰입	.197	.214	4.433***	.939	1.07
진로장벽-전체	.166	.149	3.139***	.972	1.03
다중역할 계획-개입	-.113	-.112	-2.286*	.920	1.09
상수 = 3.183					
F = 48.259***					
R2 = .423					

* $p<.05$, ** $p<.01$, *** $p<.001$

계수 .216), 전반적인 진로장벽(표준화 계수 .149), 다중역할계획의 개입(표준화 계수 -.112)이 나타났으며, 네 변수 모두 $p < .05$ 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여성), 다중역할계획 몰입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다중역할계획에서 개입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성역할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배우자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0.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다

중역할계획의 몰입(표준화 계수 .291), 성별(표준화 계수 -.232), 진로장벽 하위요인 중 취업 고정관념의 지각(표준화 계수 .195)이었으며, 세 변수 모두 $p < .01$ 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다중역할계획 몰입에 따라, 성별(여성)과 여성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지각이 높을수록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부모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0.2%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

표 8. 예비교사의 배우자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산성	
				Tolerance	VIF
다중역할 계획-몰입	.275	.291	5.335***	.998	1.00
성별	-.252	-.232	-4.123***	.937	1.07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82	.195	3.462**	.936	1.07

상수 = 2.603
 F = 22.962***
 R² = .205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272	-.219	-3.801**	1.000	1.00
다중역할 계획-몰입	.226	.210	3.636***	.995	1.01
성역할태도	-.266	-.159	-2.759**	.985	1.01

상수 = 4.247
 F = 11.269***
 R² = .102

* p<.05, ** p<.01, ***p<.001

별(표준화 계수 -.219), 다중역할계획의 몰입(표준화 계수 .210), 성역할태도(표준화 계수 -.159)이었으며, 세 변수 모두 p<.01 또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여성)과 다중역할계획 몰입에 따라, 성역할태도가 전근대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자녀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5%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성별(표준화계수 -.497)과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표준화계수 .119)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각각 p<.001과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의 성별과 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표 10. 예비교사의 자녀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852	-.497	-9.242***	.981	1.02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62	.119	2.210*	.979	1.02

상수 = 2.336
 F = 43.203
 R² = .245

* p<.05, ** p<.01, ***p<.001

따라 자녀 관련 성역할 기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가사분담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 중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가사분담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6.2%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별(표준화 계수 -.753),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념(표준화 계수 .105)이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각각 $p < .001$ 과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여성), 취업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가사분담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술한 독립변인들이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

표 11. 예비교사의 가사분담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1.421	-.753	-15.064***	.982	1.018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164	.105	2.108*	.982	1.018

상수 = 1.026
 F = 113.617
 $R^2 = .562$

* $p < .05$, *** $p < .001$

표 12. 예비교사의 경제활동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독립변인	b	β	t값	다중공선성	
				Tolerance	VIF
성별	-.795	-.486	-7.509***	.983	1.018
진로장벽-취업고정관념	.288	.213	3.290**	.983	1.018

상수 = 1.335
 F = 31.416
 $R^2 = .261$

** $p < .01$, *** $p < .001$

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기대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후 분석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6.1%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 순으로 성별(표준화 계수 -.486), 진로장벽의 취업고정관념(표준화 계수 .213)이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각각 $p < .001$ 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여성), 취업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상대 배우자에 대한 경제활동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사범대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남·여 대학생 29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인식과 성역할 기대 차이 및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여 교사이망 대학생의 성역할 인식과 성역할 기대에 대해 평균차이를 검증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성역할 기대를 설명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 시 예상되는 가사분담 비율, 전반적인 진로장벽 지각, 진로장벽 하위 요인 중 다중역할갈등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결혼 후 맞벌이 시 부인의 가사분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로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과 관련하여 더 큰 부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사에 대한 부담과 함께,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진로장벽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그 중에 특히, 다중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 대학생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이에 대한 태도 및 성역할 태도와 같은 성역할 인식에서 남녀 차이가 보이지 않음에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맞벌이 생활을 할 때 어려움에 대한 지각은 남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맞벌이 시 여성이 경험할 장벽 관련 지각에서 상당히 덜 민감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지각 차이는 이후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rogan & Kutner, 1976).

둘째,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기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성역할에 대한 뚜렷한 기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성역할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lock, 1973; Deaux & Major, 1977; 박유정, 2000; 양순옥과 정금희, 2002).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성역할 기대 및 배우자, 부모, 자녀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가사분담 및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까지 모든 측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배우자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우자가 맞벌이 상황 등에서 더 많이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인식 변화에 남성의 변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겠다. 한인영과 홍선희(2011)는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 가치가 변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분리는 일상생활에 강하게 남아 있으며, 가정에서 기대되는 성역할은 확연히 성별로 분리되어 여성이 가사일과 양육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아동의 양육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도 여성이 독점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역할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질 때 여성이 통제적인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며, 자녀도 과도하게 분리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추구하는 특성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될 것이다(Tong, 1998,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박중서(2013)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분담 실태를 보면 가사활동과 양육에 있어 여성 집중현상이 70-80%정도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주요 할 일이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46.7%만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남자들이 지금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기혼남성의 65.4%, 기혼여성의 68.4%가 찬성을 나타내어서 의식과 분담실태 상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예비교사들의 경우에도 인식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맞벌이시 가사분담에서 부인의 가사분담이 클 거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각한 것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정에서의 유연한 성역할이 가족생활만족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역할에 대해 남녀 상호간의 기대가 일치하는 것(Bahr 등, 1983)이므로, 서로의 인식차이와 기대를 확인하면서 거리를 점차 좁혀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맞벌이 상황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또한 교사의 역할 수행과 학생의 역할수행 기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녀 상호간의 역할기대가 일치하는 것이 적절한 역할수행과 만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Bahr 등, 1983) 교사의 성인지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무의식중에 학습되는 교육의 일부인 만큼(임은주와 이성숙, 2004; 황은자, 1987),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역할기대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두 결과에서 나타나듯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예비교사의 성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의 전반적인 성역할 기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 지각된 진로장벽, 다중역할계획 중 개입 부분이 선정되었다. 전반적인 성역할 기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성별로, 성별 차이에 따라 성역할 기대가 다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배우자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기대 하위요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만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일-가정을 양립하려는 의지(몰입)와 진로장벽 지각 높을수록,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고려하는 정도와 계획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개입)가 낮을수록 상대 성(性)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역할 기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 성별,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 순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일-가정 양립 의지(몰입)에 따라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다르며,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보다 잘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예비교사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로는 성별과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 성역할 태도가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즉, 이는 맞벌이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보다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남성과 성역할태도가 전근대적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대학생 응답자들도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자녀 역할 기대에는 성별과 진로 장벽 중 취업고정관념이 설명력을 가졌으며, 이는 배우자의 자녀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남녀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성역할 인식의 차이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가사분담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마찬가지로 성별과 진로장벽 중 취업고정관념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기대가 다르고 특히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경력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장벽지각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가사를 분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큼을 의미한다. 가사분담에 대해 성별이 갖는 영향력은 앞서 남녀의 성역할 인식 차이 중 가사분담 비율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의 경제활동 역할 기대에는 성별과 진로장벽 중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

념 순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가 성별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여성취업 관련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커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남·여 교사지망 대학생들은 성역할 인식 일부와 성역할 기대 전반에서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이들이 보이는 성역할 기대는 예비교사의 성별과 다중역할계획 중 몰입과 개입, 진로장벽 중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맞벌이에 대한 인식이나 일반적인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는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실제 다중역할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계획이나 태도에서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역할 태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후에 이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보일 성역할 기대로 연결될 것임을 감안할 때, 예비교사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은 수업지도 뿐 아니라 진로지도, 진로상담, 학과 선택 등 다양한 범위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때문에,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개인의 정도를 점검해보고 수업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육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인식과 현실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식 및 성역할 기대 차이를 확인하고 성역할 기대와 관련한 영향요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예비교사의 성인지 특징과 성별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학

교 현장에서 개입의 지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지망 대학생은 향후 국내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로 이들의 성인지는 교육 현장에서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성역할 인식 및 기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후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역할 기대와 관련하여 남녀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역할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더불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예비교사의 양성평등한 성인식과 성역할 기대를 위한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예비교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성인지 또한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비교사의 성인식과 성역할 기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향후 교사양성과 청소년 지도를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의미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 성역할 기대에서 성별이 갖는 의미를 질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는 제한적이다. 특히 성인지에서 성별의 작용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후속 연구들이 기대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경리 (1991). 성역할 사회화 교육에 관한 연구 - 학생, 교사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2005). 교사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양성성 증진을 위한 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예비연구.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untining Education*, 8(1), 1-22.
- 김유정, 윤지현 (2005). 초등 예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교육연구*, 8, 95-109.
- 김정자 (1990). 주부가 지각한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 (2012). 기혼직장여성의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다중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유정 (2000). 대학생의 성고정 관념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기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중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199, 28-38.
- 서광희, 조병은 (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 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97-120.
- 안진아 (2008). 역할모델 및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진로포부의 관계 - 여대생을 대상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순옥, 정금희 (2002). 남녀 대학생의 성 이미

- 지와 성 역할 인식의 차이.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289-300.
- 이윤미 (1995). 배우자에 대한 가정 내 역할기대, 수행평가의 차이가 부부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욱 (1999). 유아 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교사교육, 16(2), 217-237
- 임은주, 이성숙 (2004).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실과 교수·학습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7(4), 61-74.
- 전세경, 김은정 (2009).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초등교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2(3), 1-25.
- 전세경, 어성연 (2015). 예비초등교사들이 인식한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연구-남녀 인식의 차이 검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3), 77-93.
- 정미라 (2008). 예비유아교사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21.
-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17(2), 5-23.
- 정진희 (1990). 도시저소득층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에 관한 연구-역할인지, 역할수행, 역할평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2001).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과제-양성평등교육. 서울교육, 43(3), 12-16.
- 차성란 (1997). 남녀 대학생들의 가사노동분담 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학생생활연구, 6, 1-18.
- 최외선 (2003). 결혼과 가족. 서울: 정림사
- 최윤정 (2010). 대졸 기혼 직장 여성의 일-가족 다중역할 갈등 완화 과정: 개인 특성과 환경적 지지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5). 2015 일·가정 양립지표. 공공누리.
- 한인영, 홍성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 허순희, 정진경 (1987). 아동의 성역할 태도변화: 교사의 교수태도 및 내용이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연구, 3(2), 263-279.
- 황은자 (1987).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M. L. (1983). *Thinking about women*. N.Y.: Macmillan Pub. Co. Inc.
- Angrist, S. (1969). The study of sex roles. *Journal of Social Issues*, 25, 212-235.
- Bahr, B. G., Chappell, C. B., & Leigh, G. K. (198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795-803.
- Block, J. H. (1973). Conception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ogan, D. & Kutner, N. G (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31-39.
- Deaus, K. & Major, B. (1977). Sex related patterns in the unit of percep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297-300.
- Secord, P. F., & Backman, C. W. (1964).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Co.,

- p457.
- Slinker, B. K., & Glantz, S. A. (1985). Multiple regression for physiological data analysis: the problem of multicollinearity.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 249, R1-R12.
- Tong, R. (1998).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Weizman, L., & Fitzgerald, L. (199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scales to asses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269-284.
- 1차원고접수 : 2015. 10. 19.
심사통과접수 : 2015. 12. 14.
최종원고접수 : 2015. 12. 23.

The Study about Gender Role Perception and Gender Role Expectation of the Preliminary Teachers

Jamyoung Yi

Myongji University

Kyunghee Du

Hoseo University

As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multiple roles increase,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bout gender role perception are growing. It is worth identifying the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because the influence of teachers is very large in education and they will teach the youth who also make a family in the futur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295 students who belong to college of education or completing a course of teac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preliminary teachers in the gender role perception, specially in 'expected lyrics contribution ratio', 'career barriers' and 'multiple role conflict'. Bu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dual income status of parents', 'attitude about dual income status of parents', 'multiple role planning' and 'employment stereotypes of career barriers'. Second, women showed higher expectations of gender role including every lower measure. Third, the researchers tested the influence factors of gender role expectations. Finally, conclusion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perception, gender role expectation, preliminary teacher, multiple roles, gender